

外國學術雜誌收書業務의 實態

(Practical Acquisition for the Foreign Journals)

曹 守 鉉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I. 서 론

대학에서의 학술조사 연구활동과 산업사회에서의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문헌정보의 신속한 수입이라고 할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고급 두뇌개발을 위하고 기술개발을 위해서 이에 적응하는 시대적참여는 정보화 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와같은 정보는 모든 활동에 있어서 불가결한 조건이 되었고 정확하고 유효한 정보를 얼마나 신속히 입수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발전속도가 결정되게 되며 또한 그 대학의 연구활동이 얼마나 활성화되는가를 측정케 되는 것이다.

한 나라의 힘의 원동력은 학술발달에 있으며 학술조사연구의 진흥에 있어서도 학술정보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자타가 공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대학기관의 두뇌요 심장부인 도서관이나 교수 개인을 불문하고 광범위한 세계적인 정보를 얻고자 할 경우 외국학술잡지의 효용은 매우 높아서 이에 대한 요구는 점점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대학 도서관에서 그 필요성이 아무리 강조된다해도 예산이나 관리인원, 그리고 보관처 및 제본문제등의 여러 여건의 제약이 있으므로 해마다 증가되는 잡지를 모두 구입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 또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 재검토되어야 할 현실의 문제이다.

* 본원고는 제20차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추제 학술발표대회(1986. 11. 7~8.)에서 발표된 요지임.

따라서 대학 도서관의 학술 잡지 담당자나 수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책임자는 될 수 있는 한 경제성과 유효한 외국 잡지의 구입대책을 연구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문제는 원하는 대로 발행되는 학술잡지를 망라하여 구입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다행한 일이 없지만, 오늘날 대학도서관의 실정은 이용자의 요구충족을 시킬 수 있는 자원과 인적 조치가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대한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여건하에서 선정된 외국잡지의 구입은 국내잡지의 경우와는 달리 외국의 출판사와 또는 외국학회 등과 직접 거래하거나, 또는 국내의 대행사를 통해야하므로 잡지대금 지불이나 결호 보완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더구나 UNESCO COUPON에 의한 구입은 국내 대행점의 부실한 운영으로 학술잡지 구독에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학도서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여 외국 학술잡지 담당자나 수서책임자는 적지 않은 행정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의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다.

이와같은 외국 학술잡지 수서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과 도출된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여야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이다.

다음에서는 잡지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살펴보고 세계적인 외국의 최신학술정보 자료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잡지의 수서업무를 위

한 선정과 구입방법 그리고 결호문제 등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축차간행물의 일반적 정의

잡지(Magazine, Journal), 정기간행물(Periodicals), 축차간행물(Serials)이라고 혼용되어 불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의는 많은사람에 의해 연구시도되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교양성 잡지를 Magazine이라고 하고, 학술성잡지를 Journal이라고 흔히 이야기하고 있다. 보통 넓은 의미로 말하는 경우에는 축차간행물(Serials 또는 Serials Publication)이라고하고 좁은 의미의 경우에는 정기간행물(Periodicals)과 비정기간행물(Irregular Periodicals)로 구분한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종합해보면 축차간행물이란 통상적으로 일정한 표제하에 무제한으로 계속 간행되는 출판물로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순차 간행된다. 즉, 전자는 예고한 기일 또는 규칙적인 기간을 두고 발행되는 것으로 잡지, 신문은 물론 연보, 연감, 편람류, 인명록, 직원록과 학회 및 학술단체의 연구보고서, 의사록, 회보 등이 포함되며, 후자는 간행빈도에 있어 불규칙하게 간행되어 일반적으로 일정한 주제에 관한 도서를 축차 출판한 총서등으로 책자 내지는 팜플렛(Pamphlet)형식으로 출판된다.

III. 외국잡지의 선정 절차

지금까지의 외국 학술잡지에 대한 선정을 주로 취급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을 뿐만아니라 외국학술잡지 선정을 위한 도구의 표준적인 입수도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외국 학술잡지 선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적인 도서선정보다도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외국학술잡지가 갖는 성격이 독특한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첫째, 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 외국학술잡지 담당자나 각종 간행물을 담당하는 수서 책임자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학과에서 선정 요구해오기 때문에 간행물의 생명인 '계속성'에 대한 인식이 교수와 도서관간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유는 간행물의 생명은 계속성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계속성과 예약구입을 위해 도서관에서는 매년 경제적으로 전체도서관 예산중에서 일정한 학술잡지 구입을 위한 고정 예산을 우선적으로 책정해야 한다.

셋째, 학술잡지의 계속성은 그물리적인 팽창이 일정한 면적의 보관장소나 제본비등에 연속적으로 가속도적인 부담을 가져다 준다.

넷째, 외국학술잡지를 요구하는 당해년도부터 구입할 것인가 아니면 창간호까지 소급하여 보유할 것인가.

다섯째, 외국학술잡지는 최신성을 유지해야하고 연구영역에 합당한 주제들이 실려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 구입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교환이나 기증에 의할 것인가 등의 독특한 문제점이 제기된다.

우리가 학술잡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각 학과 교수들과 유기적인 업무연락과 의사소통이 수시로 이루어져 가장 필요한 잡지부터 선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에따라 신청자가 학술잡지를 선정할 때 주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들 도서관원이 지원해야할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1. 학술잡지 구입희망목록을 평상시부터 작성해가고 이용자나 선정담당자의 요구를 조직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정보자료로서 중요한 목록이나 학술잡지 광고의 체크, 일상적인 열람, 참고 업무에 있어서 알게된 잡지명등을 축적해 놓는 것도 필요하다.

3. 구입요구의 조정을 위한 적절한 기준을 채택하고 학술잡지 선정상의 필요한 기본적인 도구를 준비하여 논문의 인용문헌 빈도 등도 파악해 두어야 한다.

4. Back Number의 확보와 출판부제의 입수에도 노력해야할 것이다.

5. 복본의 선정과 보유에도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선정상의 주의점을 고려하여 학과에서 선정요구해온 학술잡지에 대한 서지적 자료를 필히 도서관 전담자는 검토 확인하여 이상점이 발견되면 즉시 요구자와 면담을 통한 시정방침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생명과학 분야의 학술잡지는 그 종류가 다양하고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선정시에서부터 엄격한 방침과 철저한 기준으로 객관성 있는 자료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 학술잡지의 선정방법에는 지시적 평가방법과 계량적 평가방법, 내용적 평가방법 등이 미미한 연구를 통하여 발표되어 있지만 이것은 잡지 선정의 평가를 위하여 각 도서관이 부분적으로 참고하겠기에 각 도서관 나름대로의 특징을 살려 도서관의 수서방침, 구성체제나 자료요구자, 인원조직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채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필요한 잡지의 선정이 끝나면 담당자는 예산, 교환, 기증에 의한 수서의 가부결정과 중복구입의 여부에 대하여 면밀하게 조사하고 발주 예정잡지를 최종 결정하여 선정의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신규 구입잡지의 선정발주는 계속 구입의 갱신(Renewal)업무와 시기가 동일하게 이루어지므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보통 선정과 발주에 사용하는 국내의 대행점의 목록은 신규구입잡지의 수록과 최신의 가격을 알려주는 데 좀 뒤떨어진 느낌이 있으므로 대행사를 통하여 계약 전에 미리 견적서(Quotation) 또는 Official Proforma Invoice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Ⅳ. 외국 학술잡지의 구입방법

외국 학술잡지의 구입절차는 우리들이 국내에서 일반적인 자료들을 구입하는 경우와 달라 외국발행잡지는 해외에 발주하여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잡지를 구입하는 경우와 같이 유통체계가 편리하게 마련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더구나 외국과의 서면을 통한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는 데에는 언어장애요인이 일반적으로 문제되어지고 있으나 이는 외국 학술잡지 구매담당자의 노력으로 개선되어져야 할 것이다.

1) 발주처의 결정

외국 학술잡지 구입예정 목록이 확정되면 구입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1) 국내 수입대행점을 통하여 직접 수입하는 방법

(2) 외국 소재 대행사를 통한 직접 수입하는

방법

(3) 외국의 출판사나 학회등과 직접 거래하는 방법

(4) 대학교수가 외국학회 Member Ship을 취득하였을 경우 Member Fee로 구독하는 방법

(5) Individual case로 직접 구입하는 방법 등이 있다.

위에 적은 구입방법이 결정되면 (1)~(3)의 경우는 각 대행사를 통해 견적서를 받아 국내법에 준한 Coupon입찰을 행하여 발주권을 결정한다. (4)와 (5)의 경우에는 직접 출판사나 학회에 Official Proforma Invoice를 요청하여 접수한 후 필요한 금액을 \$1,000이내에서 선급하여 구독한다.

우리나라의 예산회계법에 준용한 도서비 집행을 위해서는 특별히 외국소재 출판사나 학회 등과 직접 거래하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외에는 대행사와 계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것은 외국의 수 많은 출판사와 직거래에 따른 많은 업무상(대금지불, 가격변동, 개제나 통폐합, 주소변경, Claim, 청구, 정산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내수입 대행점의 발주권을 입찰에 의하여 결정하기전 외국학술잡지 수서담당자는 철저한 신용도와 사무능력, 성의, 구체적으로는 사무의 신속과 정확한 사후봉사의 시행에 큰 비중을 두고 조사를 하여 부실성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면 입찰참가시 규제할 수 있는 다가적인 방침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2) 외국 학술잡지 구독가격 결정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에 의하여 일정액 이상은 입찰을 의무로하는 회계법규에 따라 학술잡지든 도서든 입찰에 부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학술잡지의 경우도 부득이 이에 따를 수 밖에 없다.

입찰의 목적은 최저가격에 구입하는 것에 있으나 결코 입찰이 구매가격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한다는 보장은 없다. 입찰방식은 국내 수입대행점의 응찰에 따라 개찰결과를 참조하여 최저가격을 제시한 수입대행점에 낙찰되고 견명정가는 US\$로 표시되며 Coupon입찰이기 때문에 Coupon배정신청과 승인에 의한 지불방식을 채

택하게 된다.

이때에 입찰 총액의 4%(UNESCO Coupon Charge) 8%(통관제비용)를 가산하여 불입지정된 은행에 불입하여야 한다.

입찰은 발주자의 경비 절감의 필요와 수주자의 경쟁이라는 두가지 효과를 얻게되지만 한편으로는 중요한 난점을 가지고 있다. 즉, 매년의 계약이 반드시 동일 수입대행사에 되지 않음으로서 계속 구입에 혼란이 오게되고 결호의 발생이 높으며 이에 대한 사후봉사도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이와같은 난점을 피하기 위하여 전년의 낙찰자와 교섭하여 최저가격까지 깎는 경우도 있으나 업체들도 담합을 행하는 경우가 있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입찰 방식만이 결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심지어 UNESCO Coupon승인제도가 신고제도로 바뀌면서 부실대행점이 우후죽순같이 발생하여 외국 학술잡지 구입에 Coupon을 이용한 위법된 사례가 발생하여 상당한 어려움과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상과 같이 발주처와 구입가격이 결정되면 구입하고자하는 잡지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3) 지불 방법

외국잡지 구입에 있어 전적 계약 지불등 사무의 순서는 회계법의 기준에 준하기 때문에 일반 도서의 경우와 같지만 지불형식은 전적으로 달라서 수시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1년동안 구독하고자하는 잡지에 대한 대금을 원칙적으로 연 1회에 선불을 하여야 한다. 이 근거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65조(선금급과 기산금) 제 2 항에 의거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선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만료시 미납품분을 정산환불하여 계약자에게 반환하는 조건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정산제를 택할 경우 입찰에 의하지 않고 신용있는 국내수입대행점으로부터 전적을 받아 인증되는 대금을 선급하고 계약만료시 정산하여 부족하였을 때에는 초과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국립기관에서는 불가능한 조건이다.

이렇게 하여 주문과 송금이 완료되었을 경우 계약서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업무수행에 하자가 없도록 보완하는데 있어서 국내수입

대행점과 정확한 특수 계약 조건을 형성하여 Coupon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우리가 구독하고자하는 학술잡지가 정확히 도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우송방법

우리가 구독하고자 하는 외국학술잡지의 우송 방법에는 국내 수입대행점을 통하여 납품하는 방법과 외국주문처로부터 직접 구독자에게 납품하는 방법이 있으나 여기에는 서로의 장단점이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정확한 Checking이 대행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독자가 Claim 제기를 하지 않아도 가능한 업무단순적 차원의 이점은 있으나 국내에 도착된 잡지가 구독자에게 도착되기까지 약 3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단점을 갖고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국내대행점을 통하는 경우보다 30일 정도의 시간을 단축하는 대신에 국내 대행점과 외국출판사에 구독처로부터 직접 Claim을 제기해야하는 복잡한 업무처리를 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는 상당한 언어장애가 보완되어야 하는 필수적 요건이 요구되고 있다.

V. 외국 학술잡지 결호보완

외국에서 발행되는 학술잡지를 구독하는 데 있어서 숙명적으로 발생하는 결호문제는 구독업무에서 큰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이다.

이 문제점은 완벽한 해결책이 강구되지 못하체 우리들 당무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 결국 계약 당시에 결전된 계약조건에 따라 복사본을 납품케하거나 대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이것은 행정적, 회계적차원에서 는 합당할지 모르나 도서관 기능면에서 고려해 본다면 소기의 목적 달성에 미흡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결호를 보완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출판사에 결호구상을 독촉하여 확보하는 것이 목적인데 계약조건에 묶여 결호된체 마무리되는 사례는 시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계속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환언하면 학술잡지에 있어서 어떤 기간중에 전권호를 완전히 갖추어야만 비로소 그

참된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몇 십책이 결호라고 하는 량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디까지나 한 책의 질의문제에 환원하여 생각한다면 이용자가 요구하고 있는 잡지가 결호일 때 다른 몇 십만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도서관으로서는 아무런 이용자에 대한 봉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해주기 때문에 결호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대행사를 통하여 출판사에 직접 결호구상을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1) 결호요인분석

외국 학술잡지를 구독하는데 숙명적으로 발생하는 결호의 요인은 우송중의 사고율이 가장 크고 그 외에 잡지의 출판사나 대행점의 업무실수 그리고 도서관측에 책임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그 유형을 분류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이 그 사례를 들 수 있다.

가) 우송중의 분실이나 배달의 잘못, 그리고 정치, 사회문제의 영향으로 인한 결호 발생

나) 출판사의 발간지연, 구독자의 주소오기, 포장의 조잡한 작업, 체크이나 기록의 실수

다) 대행점의 구독갱신 및 신규 예약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속상의 잘못이나 견적의 시간적 지연, 송금의 지연, 등으로 인한사고와 지명의 변경이나 신규간행지에 대한 적절한 주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라) 국내대행점에 도착된 잡지를 구독처에 배부할 때 발생하는 업무상 과실.

마) 도서관 직원의 납품기록상 잡지의 간행사항의 불확실한 인식으로 체크 및 기록부의 표기를 잘못하였을 때

이외에도 수 많은 결호요인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결호요인을 발췌한 것이다. 도서관에서 아무리 유능한 수서업무를 처리한다 하더라도 완전한 수입으로 결호를 막을 수는 없다. 도서관은 수입대행점과 출판사에 긴밀히 협력하고 유기적인 업무연락을 통하여 결호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2) 결호잡지에 대한 처리

도서관에서는 결호가 발생한 잡지에 대하여 요인을 분석하고 잡지의 출판사항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도서관측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도서관에서는 정기적인 결호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늦어도 2개월에 한번은 수입대행점에 결호를 요청하여야 한다. 출판사의 통례로서 발송 후의 도착관리는 모두 구독자의 책임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체로 결호발생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결호를 구상요청하지 않으면 도착후의 실수로 간주되어 시기를 놓치게 되며 보충이 어렵고 품질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결호의 조기발견과 출판사항의 정확한 확인 등으로 결호구상독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아직 국내에서는 정확한 외국 학술잡지의 사고율에 대한 분석연구 결과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국내 수입대행점을 통한 자체 사고율을 분석해 보면 자연과학계 잡지의 경우 2~3% 정도이고 인문사회과학계 잡지의 경우 5~6%정도 결호가 발생하였으나 익년에 도착되는 잡지가 있어서 실제로는 사고율이 2~3%정도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I. 결론 및 제언

대학 및 기타 도서관에서 이용자를 위한 문헌정보제공을 위한 봉사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최신성을 유지한 세계적인 문헌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완벽하게 추진했을 때 업무에 대한 보람과 도서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다.

특히 외국 학술잡지 구독업무에는 여러가지 난제가 제기되고 있어 어느 누구나 부담을 안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선정절차, 구입방법, 결호보완등의 중요하고 치밀한 계획 및 분석이 요구되는 영역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와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책임있는 행정적 회계사무차원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업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려면 외국 학술잡지에 대한 도서관 입장에서의 기록관리도 합리적이며 객관성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어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

수입대행에 있어서는 국내의 대행점들에 대한 성실도, 책임감, 재정적여건, 국내거래실적등을

정확히 분석하여야 할 것이며 학술잡지에 대한 정보파일을 대항점별 또는 외국 출판사별로 정비해두어 언제든지 정보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관리방법이라 할 것이다.

끝으로 국내도서관간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학술잡지에 대한 구독관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외국 학술잡지 수서업무의 방향이 되리라 믿는다.